

현장과 시각

시 체육회의 장밋빛 청사진



최재호

체육부 차장

광주시체육회에 최근 낭보가 날아 들었다.

시체육회가 내년부터 광주시에서 관리해오던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시체육회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시 체육회는 이를 두 경기장 시설의 관리를 맡게 될 때 따라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기획·총무팀, 경기부, 관리팀 등 3개 실무부서를 경기부와 시설 관리부로 나누고, 기획·총무팀, 경기부, 무등경기장 관리팀, 월드컵경기장 관리팀, 영주체육관 관리팀 등 5개 부서로 확대한 것이다.

시 체육회는 또 현재 두 시설의 운영인력을 48명에서 32명으로 16명을 줄여 행정운영 인건비와 시설비 등 1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 체육회는 지난 2006년 광주도시공사에 운영할 때 3억3천500만원의 적자를 냈던 영주종합체육관을 2007년에 맡아 1억7천900만원의 흑자로 전환시켰다. 시 체육회는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도 흑자를 내 체육회 경영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체육회 흑자 운영의 가장 큰 의미는 자생력 강화이며 이는 곧 실력향상으로 이어진다. 돈이 곧 실력인 체육계의 현실에서 향후 시 체육회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체육회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줄곧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물론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개최지 이점을 안고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했지만 개최지를 벗어나면 한자릿수 진입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른 실업팀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지역 내 초·중·고·대학의 우수 선수들이 실업팀이 없어 타 시·도로 유출 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손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 시·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시체육회는 '광주사랑, 체육사랑'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소수의 기업들이 선수 1~5명의 월급을 챙겨 주는 실업팀과 유사한 형태의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두 시설의 운영권 이관은 얼약한 시체육회 자금 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호기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선수육성과 스카우트 등 체육회 고유 목적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체육회장의 직장 진출 기회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구조개편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새로 운영을 맡게 된 두 경기장 시설의 흑자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lion@kwangju.co.kr

“금융위기 3년 이상 가지 않을 것”

李 대통령, G20 정상회의·APEC 마치고 귀국

G20 금융정상회의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과 남미를 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11박 12일간의 해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특별 기편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16일 밤미 기간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협의했고,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측 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인사인 짐 리치 전 하원 아태소위원회장과 회담했다.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연구소 연구원들과 외교·안보 간담회도 가졌다.

이 이 대통령은 17-20일 브라질을 공식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1일 페루를 국빈 방문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내년중 개시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22-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금융위기 등에 대한 공조를 약속한 데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별도 '고별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26일 오전 귀국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긴박한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동포 리셉션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위기는 어느 땐가 해결될 것”이라며 “빠른 나라는 빨리, 늦은 나라는 늦게, 그래도 3년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며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국 반정부 시위자들이 25일 방콕 새 정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정부 시위자들은 솜차이 웅사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정부청사와 임시청사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대, 정부 임시청사도 점거 국경 마비 위기

태국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시위대가 25일 수도인 방콕 중심가의 정부청사에 이어 외곽의 임시청사까지 점거해 국경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노란 옷차림의 PAD 시위대 1만명은 이날 새벽부터 트럭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정부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돈므앙' 옛 국제공항으로 불려가 청사 앞마당을 점거했다.

PAD 핵심 지도자인 잠프 스리무앙은 “솜차이 웅사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정부청사와 임시청사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영기업노조연맹 사무국장이며 PAD 지도자인 사위 카오완은 이날부터 19만명에 달하는 연맹 산하 노조원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연맹 지도부는 지난주 현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PAD는 또 26일에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봉쇄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솜차이 웅사왓의 입국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PAD는 24일 의사당을 봉쇄해 이날 열린 예정이었던 상·하원 연석회의가 무산됐다. 또 임시청사까지 점거당해 26일 오후 솜차이 웅사왓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마저 무산될 처지여서 국경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1분도 허비할 틈이 없다”

오바마, 경제팀 우선 발표...재무 가이스너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내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시카고에서 가이스너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내정결과를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新) 뉴딜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는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내정됐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흑인 여성인 멜로디 반즈 전 미국진보센터(CAP) 정책 담당 부회장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지명했다.

그는 가이스너 내정자에 대해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고위정책결정자를 지낸 가이스너는 경제정책을 형성하고 금융시장을 관리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며 “그는 현재 경제위기를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긴급성이란 모든 측면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은 NEC 위원장을 맡게 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과 부장관, 차관으로서 주요 국제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며 미 역사상 최장 경제성장기를 이끈 경제정책을 만든 핵심 인물”이라면서 “그는 튼튼한 경제의 핵심은 강력한 면서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을 계속 피웠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인선 내용 가운데 경제팀을 가장 먼저 발표 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비전을 적극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차기 행정부 경제팀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가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위기 해결에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신속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경제에 전격적 충격을 가져다줄 만큼 아주 커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밝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美, 위기극복에 7조7천억弗 투입

GDP 절반 규모...효과는 회의적 시각

미국 정부는 15개월 전 시작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모두 7조7천억달러(한화 약 1경 1554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24일(이하 현지시간) 분석됐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공적 자금은 지난해 기준 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여기에는 씨티그룹에 지원키로 갖 발표된 최대 3천60억달러의 지급 보증과 지난달 투입된 250억달러와 이번에 추가 지원키로 한 200억달러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미 의회가 승인한 7천억달러의 '부실 금융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지원 요청된 금액이 지난주 기준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 평균치에 비해 무려 1천 900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제에는 기업어음(CP) 매입에 동원될 수 있도록 책정된 최대 2조4천억달러도 포함됐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런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오펜하이머 앤드 코 관계자는 24일 씨티그룹에 대한 막대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 지원에 반박 반등한) 주가가 향후 유동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회색이라는 결말들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불과 일주여 전만해도 7천억달러 부실 금융자산 구제 프로그램에서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않고 차기 바락 오바마 정부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24일 재원 부족 때문에 나머지도 쓸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허용 받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 쪽으로 급선회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근린시설', '아파트', '오피스텔/다세대', '숙박시설(모텔)/호텔', '농가편의시설'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DaejinSolar (주)대진솔라. Promotes solar systems for heating and hot water. Text: '태양열 시스템으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Includes contact info: 1600-7480.